

부동산대책,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1·11 부동산 대책' 발표로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들이 아파트 분양권 공개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둔 채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등 지방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다'는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 미분양 아파트가 9천 220가구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9천9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분양권이 공개와 분

집값 상승률 감안 않고 수도권 잣대 무차별 적용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광주, 사상최대 미분양 사태

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건설업체가 조기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기존 미분양 물량과 함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와 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차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을 겨냥한 정부 대책이 광주 등 지방 주요 도시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미분양 적체 심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1·11 대책 이후 지역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경제 위기론'도 확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광주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 자체가 확고한 기준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집값이 3.2% 올라 서울(18.9%), 경기(24.8%) 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광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광주는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중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를 초과하는 경우'와도 상반된 방

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남구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청약경쟁률이 2대1 수준을 크게 밑돈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1년새 6천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전체가 두드러졌다.

주택투기지역인 광산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광산구는 지난 2005년 6월 광주에서 유일하게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묶여 광주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다. 또 지난해 집값 상승률도 4.4%로 남구(5.0%)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광주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형성돼 투기수요가 거의 없는 데도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집값

▲투기과열지구=아파트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2002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주택투기지역=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 발표) 등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이다.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이나 신규분양가 면에서 남구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형성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할인점 상권 전쟁?

롯데 월드컴점 개점에 이마트·빅마트 긴장

롯데마트 광주 월드컴점이 18일 개점하는 가운데 경쟁업체인 광주 신세계 이마트와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마트 월드컴점이 광주 중심상권 중 한 곳인 서구 풍암동 월드컴경기장내에 위치해 서구 광천동 신세계 이마트와 빅마트 본점(남구 진월동) 및 풍암점(중앙동) 상권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측은 월드컴경기장내 주차시설이 양호한데다 월드컴경기장 주변이 현재까지는 광천동과 진월동에 비해 교통정체 등이 심하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다양하게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 이마트와 빅마트는 자사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빅마트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유통업체 가운데 규모면에서 가장 큰 롯데마트 월드컴점이 입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패배가 예상된다"며 "대형유통업체가 하루에 30억원씩을 서울이나 해외로 유출하고, 1년에 수십억원씩의 임대료를 광주시에 내면서 싸게 팔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빅마트는 "빅마트만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이윤을 환원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지역업체를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도 최근 매일 간부 전략회의를 열어 롯데마트 월드컴점 개점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롯데마트와 달리 지역법인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톰과 제리' 캐릭터 가구 상표로

(주)SASA, 美영화사 워너브라더스와 라이선스 계약



아동가구·침구 전문업체인 (주)SASA & 톰과제리(대표 채희중·사진·36)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와 'TOM & JERRY' 캐릭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화제다.

SASA에 따르면 "최근 공중과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만화영화 '톰과제리'가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판단, 이 캐릭터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워너브라더스에 3억원을 주고 라이선스료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ASA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가구·침구에 톰(고양이)과 제리(쥐)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채희중 대표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톰과 제리 캐릭터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없을 정도"라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적지않아 지난해 170억원 매출에서 올해 35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ASA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계기로 올해 160개의 전국 대리점수를 내년 313개로 늘리고, 예상매출을 600억원으로 올려잡아 국내시장을 제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국이나 미주지역 등지에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측은 이들 지역에서 기업이미지와 인지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ASA는 오는 8월 중국 심천의 동관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구박람회에 자사제품을 출품, 세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채 대표는 "워너브라더스와의 계약 외에 지난해 11월 어린이 가수 7공주를 캐릭터로 만든 '세븐프린세스'와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시몬다자 인사와 함께 짝꿍 놀랄만한 아동용 가구를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4년 설립된 SASA는 다른 제품보다 20% 값싼 가격경쟁력과 어린이들의 체형을 고려한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유아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6명의 연구진을 고용, 매달 2~3개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혁신형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17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5대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김향덕 신임지회장이 4대 임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성 기업인 수주 기회 늘릴 것"

여경협 광주·전남 지회 김향덕 회장 취임

김향덕(54)씨가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5대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전남지회는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박광대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3년 동안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여성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혁신형

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면서 "특히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주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조선이공대학 디자인 학부를 졸업하고 전남대·조선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여성문화사와 인맥스디자인을 경영 중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 광주·전남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올 총자산 17조원 달성"

光銀 경영 목표 제시

광주은행이 올해 목표를 총자산 17조원, 세전이익 1천7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태서 광주은행장은 17일 광주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목표를 총자산 17조원, 세전이익 1천700억원으로 잡았으며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성장, 수익기반, 자산관리, 내부역량 강화 등 4대 경영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장기반 강화는 수신과 여신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공공금고 관리 및 지역

밀착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수익기반 강화는 신용카드 활성화와 외환수익기반 강화, 디지털 뱅킹 강화 등을 통한 수익원 재창출을 의미하며 자산관리 강화는 우량여신 확대와 핵심예금 증대 및 수신구조 개선, 유가증권 운용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내부역량 강화는 직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효율성 증대, 교육을 통한 지원역량 강화,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다. 광주은행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광주 진월지구와 목포 옥암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5개의 점포를 신설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난해 광주지역 체불 국가지급액 33억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광주지역에서 체당금을 지급한 사업장 수는 모두 50곳으로 근로자는 880명, 지급액수는 33억4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말과 비교해 사업장 수는 7

곳, 근로자 수는 284명이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46.3%가 증가했다.

이처럼 체당금 지급이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은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진 데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도산한 이 지역 기업들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한민만을 위한 가발! 젊은가발! - 센스모

센스모는 뛰어난 전문가가 만든 **맞춤가발**입니다!

최고의 디자인, 최첨단 기술, 최상의 서비스. 센스모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드립니다. **맞춤가발**의 매력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맞춤가발**의 매력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맞춤가발**의 매력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대표이사: 김희중 (062) 676-3545

대표이사: 김희중 (062) 432-3545

위치: 영아병원과 원광대병원 사이

자연의 정취와 풍경을 만끽하며 **인생의 정취**를 만끽하십시오.

Biothys Korea가 알려드립니다

대리점 모집

1. 지역: 전국 각지

2. 자격: 20대 이상, 50대 이하,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

3. 근무: 월 2회, 주말 근무

4. 급여: 월 100만원 이상

5. 혜택: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

문의: (062) 531-3077, 3999

광주점: (062) 531-3077 | 부산점: (051) 771-1111 | 대구점: (053) 611-1111